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재고

윤 천 탁*

< 차 례 >

- I. 시작하며
- II. 고등학교 『문법』에 기술된 상대 높임법
- III. 등급의 명명
- IV. 등분의 체계
- V. 그 밖의 것
- VI. 끝맺으며

I. 시작하며

높임법은 문법현상이면서 동시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윤리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학자들이나 일반 언중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학자 간에 여러 논의가 있어왔고 그런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문법에, 높임법에 관련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된 높임법 관련 내용이 과연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다른 문법현상을 기술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계속 검토되어 왔다. 그런 검토 결과가 현재 학교 문법에 잘 반영되어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그러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언중의 언어생활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높임법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한 것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후 그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것에 대해 논의를 할 때 꼭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본다는 의도에서 상대 높임법에 대한 기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우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 보고 그 부분을 수정할 때 어떤 면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론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만족하고 구체적인 수정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다만, 이 글을 맺는 부분에서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학교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한다.

II. 고등학교 『문법』에 기술된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란 “화자가 문장 종결 형식에 의하여 그 상대가 되

-
- 1) 서정수(1984)는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II)- 청자대우 등급의 간소화’라는 글에서 현대 초기의 청자대우 등급과 현대 후기의 그것을 비교하였다. 이처럼 변화하는 언중의 언어생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연구 내용을 학교 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2) 사실 학교 문법에 실린 상대 높임법에 대한 기술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책들을 함께 살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한정하여 살펴려고 한다.

는 청자를 높이거나 높이지 않거나 하는 높임의 방법을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법서에 기술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에는 ‘공손법(恭遜法)’이 있고 ‘상대 존대법’, ‘상대 대우법’, ‘청자 대우법’, ‘상대 경어법’, ‘청자 경어법’과 같은 술어를 쓰기도 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상대 높임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피기 위해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³⁾

‘고등학교 문법 5. 문장-03문법 요소-2. 높임 표현’에서

*** 상대 높임법**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상대 높임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이 기사를 보십시오.
이 기사를 보오.
이 기사를 보게.
이 기사를 보아라.
이 기사를 보아요.
이 기사를 보아.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뉘는데, 각각 ‘-(으)십시오, -오, -게, -어라’로 실현된다.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나뉘는데, ‘-어/-지+요, -어/-지’로 실현된다. 격식체는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데 반하여, 비격식체는 정감적이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다.

3) 각 교육과정별로 높임법 관련 기술 내용의 변화상을 따로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정하여 살피되 예전 교육과정 중 5차와 6차 교과서의 것 중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상대 높임법에 대한 기술 내용은 5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에 양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6차와 7차 교과서로 갈수록 양이 줄어들었다. 5차의 경우에는 예문을 들고 각 예문을 설명하면서 각 등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예를 들어 “9-(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아주 낮추는 해라체이고……” 등으로 각 등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 가지 등급 외에 해체, 해요체의 쓰임도 밝히고 있다. 이런 등분과 관련하여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언중이 쓰는 문장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 귀국하셨나요? 성과가 크셨겠지요?”를 예로 들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섞여서 쓰이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각 등급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듣는 이에게 각별히 공손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오-, -옵-’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에 쓰이는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형태로 ‘하라’의 형태가 있다는 것도 기술하고 있다.

6차에서는, 높임법이 쓰인 각 문장을 예로 들고 듣는 이에 따라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다르며 종결 어미의 대립에 의해서 ‘높임’과 ‘높이지 않음’으로 분화되는데, 높임은 다시 여러 등급으로 분화되어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명령문의 경우, 높임의 태도가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실현되는 점을 들면서 이런 분화를 상대 높임의 등급이라고 하며 각 등급의 이름을 명령형의 어미에 따라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한편, 어말 어미 뒤에 다시 조사 ‘요’를 결합해서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 문장의 예를 들면서 격식적인 표현과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6차에 비해 7차에서는 보다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아마도 높임법에 대한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법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해당 문

법 현상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살피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위한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높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등급의 이름과 그런 등급을 나누는 등분 체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할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II. 등급의 명명

‘하다’ 동사의 명령법 어미 형식으로 등급 이름을 부르는 관습은 우리 사회에 오래된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등급에 대한 명명(命名)의 방식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높낮이의 정도에 의한 명명법으로,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이나 ‘formal, polite, intimate, familiar, authoritative, plain’ 등의 방식⁴⁾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이다.
- ② 명령법 어미에 의한 명명법으로, ‘하십시오체(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등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 ③ 평서법 어미에 의한 명명법으로, ‘합니다체, 하오체, 하네체’ 등

4) 김석득(1992: 542-543)에서는 우리말 높임법의 등분은, 말들이 사람이 이름씨에서 높임법을 보이는 4등분 4형식과, 풀이씨 맺음씨끝의 의향법에 보이는 4등분 5형식으로 나타난다며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아주높임 형식 → 아주높임말

예사높임 형식 → 예사높임말

예사낮춤 형식 → 예사낮춤말

아주낮춤 형식 → 아주낮춤말

반말 형식 → 아주낮춤/예사낮춤에 쓰이는 수의적인 말

이와 같은 진술은 높낮이의 정도에 의한 명명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⁵⁾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②를 근간으로 해서 상대 높임법 등급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김광해 외(1999: 184-185)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의 상대 높임 체계를 설명하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서열의 높고 낮음의 단계와 상황의 격식성과 비격식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여섯 가지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을 ‘하다’의 명령형의 이름을 따서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했는데, 이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현 학교 문법에서의 기술 내용이다.

	격식 있음	격식 없음
아주 높임	하십시오	해요
예사 높임	하오	
예사 낮춤	하계	해
아주 낮춤	해라	

이 설명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은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도 격식이 없는 자리와 마찬가지로 ‘합쇼체’나 ‘하오체’보다는 ‘해요체’를 두루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서 ‘해요체’에 ‘두루 높임’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이 명명법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문법에서 쓰고 있는 ‘합쇼체’라는 것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⁶⁾ 한편, 이른바 ‘합쇼

5) 박영순(1985)에서는 ‘했습니다, 했어요, 했소, 했네, 했어, 했다’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평서법 어미에 의한 명명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 민현식(1999: 183)에서는 “특히 하십시오체에서는 선어말어미 ‘-옵/으오-’, ‘-삽/사옵/사오-’, ‘-잡/자옵/자오-’를 넣으면 더욱 공손하게 되는 데……”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는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합쇼체’의 문

체’에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제가 할깁쇼? / 그러믄입쵸. / 이리로 들시오.

‘합쇼체’의 ‘합쇼’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문장 종결 형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은 서울 지방의 특수한 사회적 계층의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하십시오체’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이를 ‘합니다체’로 바꾸어 부를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부를 때 명령형 어미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다.

강창석(1987)에서는 ‘하십시오’의 의미를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형식이 사용되는 ‘부모’나 ‘스승’ 등의 상위자에게는 ‘높이는 명령’ 이전에 아예 명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하께’의 경우에, 이 형식이 주로 사용되는 ‘사위’나 ‘성인의 제자’ 등에게도 실제로 거의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서, 명령을 아예 하지 못하는(안 하는) 상대에게 쓰이는 형태소의 의미가 ‘명령’으로 처리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그것을 바탕으로 등급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홍빈 외(1995)에서는 위의 명령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②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로, 다른 서법에 비해 명령법은 분포의 제약이 심하고, 형용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명령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포가 극히

제를 인식하고 ‘하십시오체’라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등분 체계를 나누는 것을 보인 것에서 ‘하십시오(합쇼)체’라는 용어를 썼었다.

이관규(1999: 198)에서는 합쇼체는 본래 ‘어서 읍쇼. 서방님이 기침을 허셨는덥쇼.’에서와 같이 종결형이 ‘-읍쇼’인 형식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봤다. 20세기 말인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서 오십시오’처럼 ‘-니시오’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하십시오’체로 바꾸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약되는 형식으로 그 등급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명령법이라는 것이 상대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적어도 극진한 예의를 갖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예의의 문제에서 명령부터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등급의 대표형을 명령법 어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편, ②와 같은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통상 ‘하라체’라고 부르는 등급에 대한 설명 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김광해(1999:186)에서는 상대 높임법의 ‘해라체’와 구분하여 ‘하라체’의 성격을 비교하며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상의 학교 문법에서는 ‘하라체’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내용이 좀 더 타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6차 교과서에서는 명령문의 경우, 명령형 어미에 따라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라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를 ‘문법 기능’ 영역에서 기술하고 있으면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장면에 따른 표현과 이해’ 부분에서는 “국어의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문장 형식은 다시 높임의 수준에 따라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해체, 해요체’ 등으로 갈라져서 매우 다양하게 실현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의 설명을 보면 명령문의 경우에 ‘해라체, 하계체……’ 등이 쓰이고 다른 문장의 경우에는 다른 등급의 이름이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뒤의 설명에는 그런 생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설명은 자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명령형 어미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명명하는 것은 높임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평서문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기술하는 것도

그리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평서문의 경우도 언중들이 쓰는 여러 가지 문장 형식의 한 분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종결 어미를 들어서 비슷한 등급의 다른 문장 형식을 아우르게 기술하는 것은 설명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높임법의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체’ 등으로 종결 어미에 따른 명명법을 취하기보다는 ‘-높임’ 등으로 높낮이의 정도로 등급을 명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야 높임법이라는 문법 현상을 학생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높임법의 양상에도 더 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급에 대한 명명은 등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루어져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등분에 대한 논의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V. 등분의 체제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나 종류, 반말인 해체의 처리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남기심 외(1993: 332)와 이관규(1999: 19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 최현배(『우리말본』, 1959):

- 아주높임(합쇼),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게), 아주낮춤(해라), 등외(반말)

* 이희승(『새문법』, 1964):

- 하소서체,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 김민수(『신국어학』, 1964):

- 극존경(하나이다), 보통존경(합니다), 존경(하오), 하대(하게), 보통하대(해), 극하대(해라)

- * 강운호(『정수문법』, 1968):
 - 극존대체(하소서), 보통존대체(합쇼(합니다, 하오), 보통비대체(하게), 극비대체(해라)
- * 허웅(『표준문법』, 1969):
 - 갑니다, 가오, 가네, 간다
- * 강복수 · 유창균(『문법』, 1969):
 - 아주높임(합니다),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네), 아주낮춤(한다), 반말(해)
- * 성기철(『국어 대우법 연구』, 1970):
 - 아주 높임, 예사 높임, 두루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낮춤
- * 박영순(『한국어 통사론』, 1985):
 - 했습니다, 했어요, 했소, 했네, 했어, 했다
- * 서정수(『존대법의 연구』, 1994):
 -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 학교 문법에서는 격식체에서 네 가지 등분으로 나누어 상대 높임법의 등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식의 기술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민현식(1999: 183)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격식체 ┐철수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 아주높임-하십시오(합쇼)체
 - | 철수는 공부하고 있소. => 예사높임-하오체
 - | 철수는 공부하고 있네. => 예사낮춤-하게체
 - └ 철수는 공부하고 있다. => 아주낮춤-해라체
- 비격식체 ┐철수는 공부하고 있어요. => 두루높임-해요체
 - └ 철수는 공부하고 있어. => 두루낮춤-해 체

그러나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나누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Lukoff(1977)에서는 상대존대의 마침법 씨끝을 격식체(formal style)와 비격식체(ordinary style)로 나누고, 그들을 각각 존대(honorific)와 비존대(non-honorific 또는 plain)로 나누어 보았다. 격식체는 존대에 ‘하십시오’체, 비존대에 ‘하다’체와 ‘하라’체를 분류하였고, 비격식체는 존대에 ‘해요’체와 ‘하지요’, ‘하나요’……‘합시다’, ‘합니다’, ‘합디까’……그리고 비존대에 ‘반말’, ‘하오체’, ‘하지’, ‘하는데’, ‘하는군’ 등을 분류하였다. 나아가서 상대 높임의 용법을 의례적 용법(儀禮的 用法, ceremonial use)과 정감적 용법(情感的 用法, expressive use)의 두 가지로 갈라 보았다. 의례적 용법이란 것은 어느 특정한 등급의 씨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나이나 직업, 직위 등의 주어진 사회적 규범에 의하고, 말하는 이의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주어진 선택으로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경우의 용법을 말하고, 정감적 용법이란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느낌, 개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어느 문체를 선택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어느 특정한 문체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개인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⁷⁾

강창석(1997)은 상대 높임법이 쓰인 여러 예문을 들면서, 이것들이 청자의 신분에 따른 언어형식의 분화를 보여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분되는 언어형식들이 곧 청자의 신분 자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즉 ‘-하십시오’의 경우 분명 상위자에 대해 쓰이는 형태소이지만 이 형태소의 의미가 곧 청자의 ‘상위성(上位性)’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위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이나 ‘존경’의 의미도 아니며 각 등급을 설정한 것을 비롯한 이른바 청자 경어법 논의의 혼란은, 각 형태소나 단어의 의미가 청자의 신분이

7) Lukoff(1977)에 나온 격식체, 비격식체, 의례적 용법과 정감적 용법에 대한 개념, 분류, 정의는 남기심(1996: 662-664)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인용함.

나 혹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높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종결어미의 경우에, ‘해요’, ‘합니다’에서의 ‘-요’나 ‘-니다’의 의미도 모두, 청자를 높이거나 청자의 ‘상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공손’을 뜻하는 것이라 한다. 즉 “어디 가세요?”에서 청자(=주체)가 상위자라는 사실은 이미 ‘-시-’에 표시되고 있으며 ‘-요’는 결코 동일한 의미를 중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상대 높임법을 공손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해라’의 의미가 명령이라면 ‘하게’의 의미는 ‘권유’, ‘하십시오’의 경우는 공손한 ‘부탁’ 등으로 구별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가 ‘상위자/비상위자’에 따라 각기 쓰임이 제약되거나 형식이 분화된 것을 무리하게 하나의 의미범주로 묶으려 하니까 마치 청자의 경우에만 신분 등급이 다분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청자의 경우에도 기본 등급은 ‘상위자/비상위자’의 2분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상위자에게 쓰이는 언어형식들의 의미는 청자의 ‘상위성’이나 화자의 ‘높임’, ‘존경’ 등이 아니라 화자의 ‘공손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비상위자의 경우 다시 영역이 세분되고 그에 따라 언어형식도 분화된 예들이 있는데, 이 경우의 영역 분화란 친소의 정도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상위자/비상위자’의 이분체계를 깨뜨리는 것도 아니고, 수직적인 등급으로 설정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았다.⁸⁾

8) 강창석(1987)은 이런 관점에서 ‘공손법’의 논리가 분명해진다고 보았다. 상위자에 대한 언어 형식의 의미가 화자의 ‘공손성’이라면, 이 범주의 명칭에서 ‘화자’라는 접두어가 붙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문법 현상의 명칭이 ‘화자의 문법’이 아니고 ‘의문법’으로 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상대 높임법’이란 명칭을 ‘공손법’ 등의 용어로 바꾸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높임법의 전반을 다루는 글에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의 현상을 분석한 경우는 더 있는데, 이런 견해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박창해(2002)는 우리 민족의 삶의 실상과 대화말의 예절을 상대적인 상관 관계성으로 살펴보아 현대 한국어의 표현 양식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말로 하는 존대와 하대를 어법 범주의 대상으로 하여, 높임과 낮춤으로 대립시켜 보면서, 사람은 다 평등하므로 등분은 매기지 않은 채, 사람 사이에 있는 상대적 상관(친분) 관계, 사회적 역할의 차이 등을 상대적 상관 관계성(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분담 관계 등)으로 살펴서 말의 표현 양식을 정했다. 그가 정한 표현 양식이 쓰인 문장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내가 총장을 만나러 간다.	평교 용법
나는 총장을 만나러 가네.	중간 용법
나는 총장님을 뵈러 가아.	평교 용법의 친교 용법
저는 총장님을 뵈러 갑니다.	정식 용법
나는 총장을 만나러 가오.	정식 용법의 친교 용법1
나는 총장을 만나러 가아요.	정식 용법의 친교 용법2

위와 같은 분류는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상대 높임법 등분 분류 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박창해는 이미 1964년에 그와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 이런 견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른 많은 연구자들과 같이 낮춤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하지 않은 점이라는 점을 김태엽(1999: 76)에서 밝히고 있다. 이후, 문법론의 층위에서 우리말의 상대 높임법이 높임법과 낮춤법의 대립으로 체계화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견해가 많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 거의 통설화된 듯한 상대 높임법의

다만,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과 상이한 견해를 밝히는 의견만 거론하고자 한다.

체계에서 낮춤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조적,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잡은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태엽(1999: 131)은 청자높임법을 크게 높임법과 안높임법으로 나누고 높임법을 아주높임법, 좀더높임법, 예사높임법으로 삼분하였다. 또한 서상준(1996: 40)은 갓춘 높임, 두루 높임, 예사 높임, 반말, 평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견해들은 상대 높임법에서 낮춤이라는 것을 설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힌 것들이다.⁹⁾

기존의 학교 문법의 등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를 더 살펴해보겠다. 임홍빈 외(1995)에서는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등급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따른다며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하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등분을 따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가 제기한 여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ㄱ. 높임과 낮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ㄴ.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해요’형이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에 두루 쓰일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두루 높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ㄷ. 상대 높임의 등급에서 ‘등외’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 ㄹ. ‘해체’와 ‘해라체’의 등급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ㄱ의 경우 아래 예문을 통해 보았을 때, ‘하오’나 ‘하게’는 어떤 경우에도 상위자에게 쓸 수 없는 형식이므로 ‘하오’를 예사 높임이라

9) 김태엽(1999: 70-71)은 정말 우리 거래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을 낮추어 예우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말하는 사람에 비하여 말을 듣는 사람의 나이가 적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또는 항렬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을 결코 낮추어 예우하지 않고 다만 높이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고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아버님, 이 꽃이 예쁘오. / *선생님, 이 꽃이 예쁘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오체는 하계체와 함께 특정한 상대에 대하여 정중한 대우를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ㄴ의 경우, 하오체가 높임이 아닌데, ‘하오’할 상대에 ‘해요’가 쓰일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두루 높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해요’는 높임이나, ‘하오’는 높임이 아니기 때문에 ‘해요’가 ‘하오’에 두루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ㄷ의 경우, ‘해요체’는 ‘합니다체’와 마찬가지로 상위자에 대하여 쓰일 수 있는데, 이 기준만으로도 ‘합니다’와 ‘해요’는 적어도 낮춤이 아닌, 높임의 등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비슷한 ‘높임’에 속하면서 하나는 등급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급 밖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끝으로, ㄹ의 경우를 살피기 위해 아래의 문장을 들고 있다.

(개한테) 이거 먹어 / *이것 먹어라.

‘해’를 ‘해라’보다 덜 낮추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더 낮추는 것이라고 보면서 해석을 해보면, ‘해라’는 생각할 여유를 주는 명령인데 대하여, ‘해’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명령이라고 했다. ‘해’와 달리 ‘해라’는 상대의 의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데, 이는 ‘해’가 ‘해라’보다는 함부로 대하는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비격식체라면, ‘해라’가 격식체이면 ‘해’는 비격식체라는 것이 된다.

위의 논의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것도 있으나,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임흥빈 외(1995)에서 내놓은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다음

과 같다.¹⁰⁾

높은 대우- 합니다(격식체), 해요(비격식체)

같은 대우- 하오(격식체), 하게(비격식체)

낮은 대우- 한다(격식체), 해(비격식체)

이상의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등분 체계가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¹¹⁾ 등분을 나눌 때에는 현재 언중들이 언어생활에서 어떤 높임법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학생들은 그런 등분에 따라 높임법을 쓰고 있지 않은데 그와는 동떨어진 등분 체계가 학교 문법에서 제시된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V. 그 밖의 것

위에서 살펴본 등급의 명명과, 등분 체계 이외에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와, 상대 높임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

10) 한편,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로 개발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는 상대 높임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격식체(Formal Speech Level): 존대형(High Form), 중립형(Neutral Form), 하대형(Low Form)
- 비격식체(Informal): 존대형(High Form), 하대형(Low Form)

11) 이러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높임법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이견(예: 상대 높임법이 아니라 공손법으로 보는 견해 등)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높임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상대 높임법을 기술할 때 명명법이나 등분 구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6차 문법 교과서에는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하여 실현된다.”라고 기술되었던 것이 7차에서는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라고 바뀌어 있다.¹²⁾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관규(1999: 198)와 같은 문제 제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결 어미가 아닌 종결 표현이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하십시오’는 합쇼체의 대표적인 종결 표현인데, 이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결 어미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격식체 중 두루 높임 형태인 ‘-어요’는 종결 어미 ‘-어’와 보조사 ‘-요’로 나누어지므로 막연하게 상대 높임법이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는 논의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가 합당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문법』에 나온 다른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 용어와의 일관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지칭하는 대상이 모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명칭으로 ‘문장 종결 형식’이란 말도 있는데, 이런 여러 용어를 비롯하여 높임법이라는 문법 현상을 원활하게 설명할 용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보완점을 생각해 보겠다.

‘하라체’에 대한 언급으로, 5차 교과서에서는 해라체의 한 형태로 ‘하라’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12) 5차 문법 교과서에는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는 진술이 있다. ‘일정한 종결 어미’(5차)에서 ‘주로 종결 어미(6차)’를 거쳐 ‘종결 표현’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는 해라체를 쓰는데, 이 때의 해라체는 글 읽는 이를 낮추는 뜻이 없다. 이와 같이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인쇄물의 해라체는 그 명령 형이 ‘해라’가 아닌 ‘하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는 여러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하라’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 문법에서 거론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VI. 끝맺으며

상대 높임법에 있어서는 ‘하계체’가 거의 소멸해 가는 상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대 높임법이 단순화되어 가고 있고, 격식체보다는 ‘해요체’, ‘반말’ 등이 눈에 띄게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언어생활의 변화들에 매번 즉각적으로 학교 문법이 대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중의 언어생활과 괴리되는 면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 현상에 대한 기술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 높임법의 체계에 대해 언급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상대 높임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익섭 외(2000:368-369)에는 ‘대우법의 끝은 어디인가?’는 제목으로 기술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높임법이란 문법 현상의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먹다/잡수시다’와 같은 쌍에 그 중간 단계의 어휘인 ‘자시다’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중간 단계의 어휘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사실은 ‘자시다’ 이외에 ‘잡수시다’의 축약형인 ‘잡숫다’도 있고, ‘들다’도 ‘먹다’의 의미로 ‘들게, 드시게, 들어요, 드세요, 드십시오’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국어 대우법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더욱이 ‘자시다’는 다시 몇 가지 등급의 종결어미를 취하므로 ‘먹다, 잡수시다’ 등이 여러 종결어미와 만나는 조합까지 합치면 먹는 행위 하나에 대한 표현의 등급이 몇 개나 될지 정확히 헤아리기조차 힘들게 된다.(예: 이것 좀 자서요./ 이것 좀 자시게./ 이 사람 그만 좀 자서.)

한편, 높임법 등급의 재분화는 상대 높임법뿐만 아니라 주체 높임법까지도, 존대 표시의 조사 ‘께서’를 취하느냐 않느냐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국어 높임법은 그 체계 자체가 다원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개별 체계로 표현되는 등급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세분된 등급들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학교 문법에서 높임법을 다룰 때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술보다 높임법의 본질적 기능을 익히면서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상대 높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 문법에서 기술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을 밝힘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등급의 명명을 할 때, 명령법이나 평서법 등의 어미에 의한 명명보다는 높낮이의 정도에 따른 명명으로 등급을 밝힌다.

둘째, 등분의 체계를 너무 명시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여러 등분이 가능함을 밝힌다.

셋째, 말하는 이와 상대가 한 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 즉,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여러 높임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밝힌다.

■참고 문헌■

- 강창석(1987), 국어 경어법의 본질적 의미,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 김광해 · 권재일 · 임지룡 · 김무림 · 임철성(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말본론-, 탑출판사.
- 김태엽(1999)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I -국어 문법 일반의 문제-, 태학사.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문교부(1991),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영순(1985),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
- 박창해(1990), 한국어 구조론 연구(1, 2, 3 합본), 탑출판사.
- _____(2002), 한국어의 통어 구조, 2002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학특강’ 강의자료.
- 서상준(1996), 현대국어의 상대높임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익섭 · 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198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 · 장소원(1995), 國語文法論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Lukoff, Fred(1977). “Ceremonial and Expressive Uses of the Style of Address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Hornbeam Press, Inc.

<초록>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제고

윤 천 탁

높임법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언어생활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다른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대 높임법의 경우 등급을 명명하는 방법과 등분의 체계를 나누는 것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추후 학교 문법 내용을 기술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등급을 명명하는 방법에는 높낮이 정도에 의한 것, 명령법 어미에 의한 것, 평서법 어미에 의한 것 등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높낮이 정도에 따라 명명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등분의 체계를 나눌 때는, 보통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 격식체를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로 나누고 비격식체를 해요체와 해체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하여 너무 명시적으로 체계를 나누기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중점을 두어 문법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상대 높임법이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는 설명에서 ‘종결 어미’라는 용어보다는 ‘종결 표현’이나 다른 어떤 용어가 더 적당하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표현 등이 여러 매체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학교 문법, 상대 높임법, 높임 등급의 명명, 높임의 등분 체계

<Abstract>

The reconsideration of Korean hearer-honorific description at school grammar

Youn, Cheon-tak

In case of Korean hearer-honorific descrip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naming honorific speech level and divide of honorific speech.

So, In the future when we need to revise description of the Korean hearer-honorific at school grammar, there is something to consider. My opinion about Korean hearer-honorific description for student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s follows.

In case of naming of honorific speech level, there are many ways to name it. But I think It's more proper way to name the honorific speech level by method about a matter of degree of high and low to hearer.

And explanation of the character of each hearer-honorific level expression and speaker's choice of honorific expression is better than exact account about divide the speech level.

Also, honorific expression for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needs to mentioned at school grammar for students who are close to various media like newspaper, magazine.

【Key words】 school grammar, hearer-honorific, naming honorific speech level, divide of honorific speech